



‘대나무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싱글빈야드 와인’

다렌버그 뱀부 스크럽

The Bamboo Scrub

지역	호주 > 남호주 > 맥라렌 베일		
포도품종	쉬라즈 100%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C		
테이스팅 노트	놀랍도록 다양한 풍미에서 오는 복합미는 해초류, 향신료, 달콤한 콜라, 초여름의 베리류의 풍미까지 다양한 노트를 선보인다. 뛰어난 깊이감과 과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부드러움, 우아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오래도록 지속되는 피니쉬가 매력적이다. 지금 바로 음용해도 좋고, 향후 더 셀러링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풍미를 기다려도 좋은 와인이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흰 육류/익힌 생선/익힌 채소/치즈/훈제, 염장 음식/피자, 파스타		



제품설명



울창한 대나무(Bamboo)와 울창한 숲(Scrubland)으로 뒤덮인 빈야드에서 착안한 독특한 이름의 와인으로 라벨에 그려진 와인메이커 제스터 오스본까지 더해져 독특한 다렌버그 와인의 무드를 자아낸다. 프렌치 오크 바리크 내에 20개월 오크 숙성을 통해 완성한 부드럽고 깊은 풍미가 인상적이며 14.5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가 과하게 느껴지지 않을만큼 뛰어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5빈티지 제임스 홀리데이 James Halliday 93점
 2014빈티지 제임스 홀리데이 James Halliday 95점
 2013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와이너리



다렌버그는 남호주 대표 부띠고 와이너리로,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쉬라즈 & 비오니에를 블렌딩 하는 파격적인 시도와 스토리를 담은 독특한 제품명 등 호주에서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다렌버그는 남호주 지역 프리미엄 레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맥라렌 베일에 위치해 있으며 1912년 조셉 오스본(Joseph Osborn)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Australia's First Families of Wine (호주 가족 경영 와이너리)의 12개 와이너리 중 하나로 호주 와인 역사를 반영하는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와인 & 스피릿(Wine & Spirit)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100대 와이너리로 총 4회 선정, 디켄터(Decanter) 매거진으로부터 2017년 올해 방문해야 할 와이너리로 선정되었다. 레이블의 레드 스트라이프가 특징인 프리미엄 와이너리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